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경제사회 변화, 교회의 사명

이우성*

논문 초록

한국은 2026년경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20-30년내 사회보장제도, 노인복지 문제, 노동시장 변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사회변화를 맞아 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인선교와 구제활동의 강화이다. 이미 핵가족화와 가족붕괴로 독거노인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고령화의 가속화로 확대일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 증대가 시급하다. 두 번째로 가족해체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대해서 교회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 고령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노령인구 증가에 있다기보다 자녀수의 감소에 있다. 이혼율 급증과 가족해체로 청소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청소년 문제, 폭력문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 가정회복과 청소년 선교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교회 자체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서구 교회들이 산업화, 세속화, 고령화로 교회가 노인들뿐인 상황과 같이, 한국교회도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교회의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

핵심 주제어: 고령화, 경제사회 구조변화, 노인선교와 구제, 독거노인가구, 빈곤, 가족해체, 청소년 문제, 교회쇠퇴

*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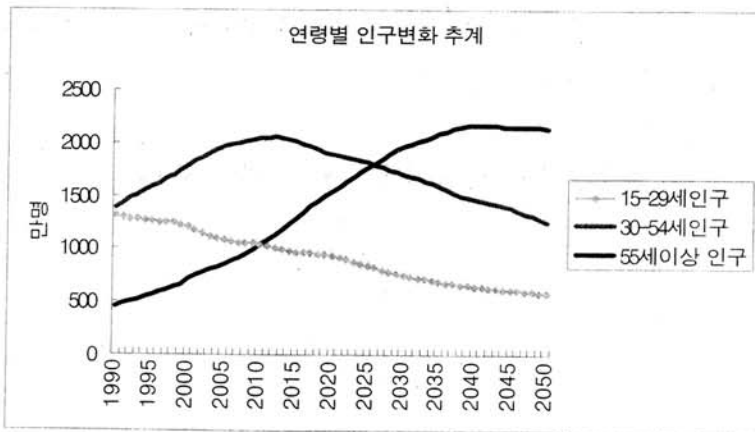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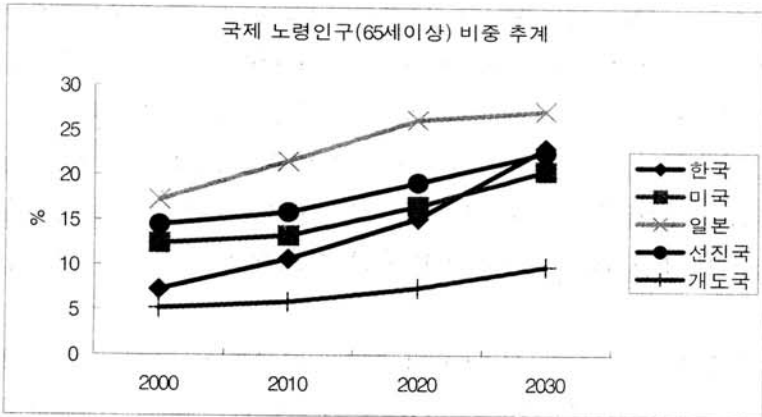
- | |
|---|
| I. 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장래추계
II.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정부정책
III. 교회의 사명
IV. 결론 |
|---|

I. 고령화의 현황과 장래추계, 원인

우리나라는 2001년을 기준으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고령자 인구비중 14.0퍼센트)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퍼센트)가 된다는 통계청의 전망인데 UN의 집계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을 넘어선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이 현재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령사회가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인구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2001년 현재 4,134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규모는 2023년 5,06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나타내어 2030년에는 5,030만 명, 2050년에는 4,434만명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추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유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커 드러커는 그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과거 로마시대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를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고

령인구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평균연령은 1900년대에 50세 정도 이었던 것이 90년대에는 75-80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덧붙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양 되는 데는 무려 40-10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1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 고령 사회로는 7년만이 소요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보다 빠른 속도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압축성장에 따른 사회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5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출산율이 6.0(1960년)에서 인구대체수준 출산율인 2.1(1984년)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현재는 1.30으로 OECD국가 중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반면에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60년대 평균 56.4세였으나 90년대에는 73.2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II장에서는 다가올 고령사회가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 NGO에서 바라보는 고령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시각이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고 IV장에서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출산율 및 평균수명 과거 추세 및 전망 국제비교

	연대	60-70	70-80	80-90	90-00	00-10	10-20	20-30
합계출산율	한국	5.17	3.6	1.92	1.6	1.54	1.69	1.93
	미국	2.93	1.91	1.87	2.05	1.92	1.91	1.98
	일본	2.01	1.94	1.71	1.45	1.36	1.46	1.56
평균수명	유럽	2.47	2.07	1.86	1.5	1.33	1.37	1.52

	한국	56.4	63.7	68.5	73.2	76.1	78	79.6
	미국	70.2	72.4	74.7	76.1	78	79.6	80.9
	일본	70.1	74.4	77.6	80	82	83.7	85.3
	유럽	70.1	71.3	72.6	72.9	74.3	76.4	78.1

II.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대응책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던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와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로의 이양이 장기적인 변화로 실제 단기간에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향후 초 고령 사회가 되었을 경우 - 2050년경에는 전체 성인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 된다 - 나타날 경제, 사회적인 현상은 지금과 상당히 다를 것이기에 자신의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관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파탄이다. 선진국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연금비용의 지출 부담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어 왔다. 이는 과거 노인인구의 급속한 확대와 출산율 하락이라는 인구감소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유럽의 복지국가 건설 계획이 고령사회의 출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90년대부터 영국에서의 '제3의 길'과 같은 새로운 사회복지체제의 복지체제 재편

(retrench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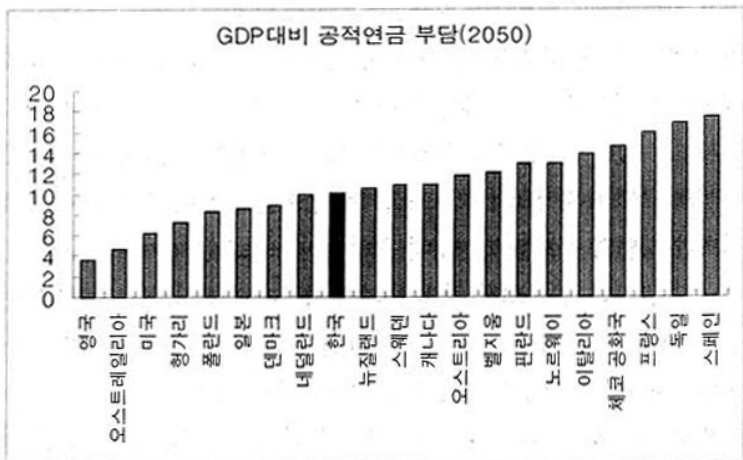
OECD는 1980년대 초부터 연금과 의료보험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공적재정 부담을 추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당시에는 1995년까지 OECD국가가 연평균 18.2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73.7퍼센트 증대하여 연금과 의료보험 부담 증대에 대한 전망이 안일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공적연금 수혜자가 증폭됨에 따른 비용증대와 고령화 사회 진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저하와 복지수요 증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Nyce and Schieber, 2001).

OECD는 2001년 인구구조변화와 경제구조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는데 현재 공적연금 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GDP대비 2.1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나 2050년에 이르러서는 10.1퍼센트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Dang et al, 2001). 이는 OECD국가 가운데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 역시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공적연금 부담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실상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이고 국민연금도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에 이르러 적자와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경고들도 있다. 연금체계와 의료보험체계의 개선은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적자에 가장 큰 요인이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선진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두 번째 관심 있게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의료와 재가복지 등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노령인구 관련 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2000년 현재 3.1퍼센트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치인 18.7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Visco 2001, OECD). 정부재정에서도 노인복지사업관련 2002년 예산은 4,025억원(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2)으로 전체 재정부예산 1,459,603억원(중앙정부)의 0.28퍼센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관련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쳐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노인복지수준이 크게 열악해질 것이며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한 예산확대가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재의 여성노인들이 일제강점기거나 한국전 이전 세대로서 여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이며 이에 따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크게 열악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장하진, 박영란, 2002).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서구 선진국들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악화를 반면교사 삼아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1)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 2)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 강화,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노인에 대한 국민복지기본선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변재관, 2001).

셋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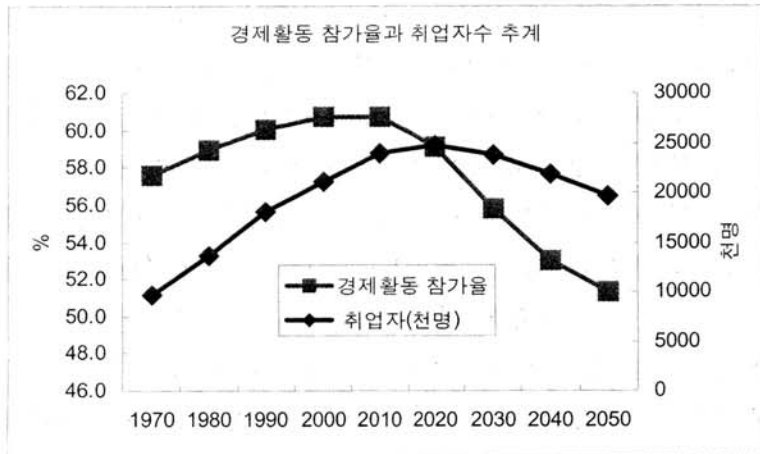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노동구조가 고령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취업자 수의 절대 값이 하락하고 생산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투입의 하락과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의 하락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다.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대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구조의 연령대별 구성에 대한 추계결과들이 있다(이혜훈, 2001; 이우성, 2002; 장지연, 2002).

이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는 대체적으로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인구 자체도 2002년 현재 50-64세 비중이 18.4퍼센트에 불과하나 2020년에는 33퍼센트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현재 40대 취업자비중이 27.1퍼센트로 30대의 비중(26.8퍼센트)보다 높아져 가장 구성비중이 높으며 2030년에는 50대 취업자비중이 21.7퍼센트로 가장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대한 노동시장의 정책으로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및 고용기회 창출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퇴직연령의 연장을 통한 근로시기 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고 연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령 연령자를 위한 파트타임 등의 고용형태의 신축성 제고가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 노령인구의 고용제고와 노령 노동인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비율부과와 같은 규제성 정책과 취업알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Keese & Lee, 2002; 이원덕 & 장지연, 2002).

네 번째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¹⁾ 먼저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구조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일본의 90년대 장기불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빠른 고령화 진전이 지적되고 있다(강문선, 2001). 여기에 저축율의 감소로 투자자금의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청장년층의 저축성향은 노년층보다 높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00-205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1.6-1.8퍼센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DI 보도자료 2002. 5.2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1) Bloom et al. (2001); Lindh and Malmberg (1999); McMillan and Baesel (1990); Bloom and Williamson (1997); Lindh (1999); Stephenson and Scobie (2002).

구성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베이비붐머 세대가 55세 연령의 조기퇴직계층에 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우성, 2002).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고령자의 무 위험자산 선호도에 따라 고령화의 진전으로 주식시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연금과 기금규모의 증대로 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금과 기금규모의 주식투자비중이 작았던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는 연금수익성의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계에서 직접금융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KDI 보도자료, 2002; Geanakopolis et al, 2002).

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 증가, 의료비/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출요인이 급증하면서 재정수지의 악화와 국가부채 누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에 대처하고 자산의 다각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자본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KDI 보도자료, 2002).

이 밖에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직자, 노인인구가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과 노인인구가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인들이 적극적으로 NGO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봉사 증대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노령인구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향후 노령인구들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실버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여기에 전통산업계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생산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산업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기술계에서는 고령화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노인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신사업 기회, 인사관리정책의 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등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가 가져 올 경제사회의 변화와 그 가운데서 국가의 이익과 각각의 이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경제 사회적 대책과 사회문화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사회복지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나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논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과 작업환경에 대한 논의 등은 기독교인 학자들이 복지와 노동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에 선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독교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경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필자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특별히 교회가 당면한 과제와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고민하여 보았다.

III. 고령화에 직면한 교회의 사명

1. 노인선교와 봉사활동

고령화를 맞이하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논의들에는 한국교회의 노인복지의 개선과 노인선교를 촉구하는 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필자가 이 글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농촌과 산간벽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생긴 것이다. 실제로 농촌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낙이 없이 허물어져가는 집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시는 가슴 아픈 사연의 노인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이 분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손길이 미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한국교회의 노인복지/선교를 촉구하는 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양곤, 2002; 최무열, 2001; 이승렬, 2001; 모선희, 2002). 본 절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실태와 전망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주택 총 조사(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백37만2천명으로 총인구 45백98만5천명이 7.3퍼센트에 해당된다. 지난 총 조사해인 1995년과 비교하여 27.7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총인구 증가율 3.2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 지역별로는 노인인구의 59.4퍼센트인 2백만3천 명가량이 동지역(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면지역(농촌지역)에는 40.6퍼센트인 1백36만9천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인구가 높게 나

타난다. 그러나 행정구역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전남(13.6퍼센트, 271천명), 충남(12.1퍼센트, 222천명) 경북(11.6퍼센트, 314천명), 전북(11.2퍼센트, 212천명)이고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은 5.4-6.2퍼센트로 낮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인구구성에서 노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의 혼인상태와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인 경우가 52.0퍼센트(1,753천명), 사별 47.0퍼센트(1,589천명), 이혼 0.7퍼센트, 미혼 0.3퍼센트 순으로 나타나며 3세대가구에 계신 노인인구는 29.9퍼센트(1,001천명), 1세대가구 28.7퍼센트(960천명), 2세대가구 23.9퍼센트(799천명), 독거노인 16.2퍼센트(543천명) 비 혈연가구 0.4퍼센트(15천명)로 나타난다. 1995년 총 조사와 비교하면 3세대가구수가 줄어 들고 1세대 가구 와와 독거노인의 수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교육정도와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규교육을 아예 받지 못한 분들이 전체의 44.3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초등학교(33.8퍼센트), 중학교(8.4퍼센트), 고등학교(8.0퍼센트) 대학이상(5.4퍼센트)로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으며 특히 고령인구일수록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규의무교육의 실시역사가 길지 않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은 25.0퍼센트인 842천명이며 이중 74.5퍼센트인 627천명이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득상황에 대하여는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2000)에 따르면 가구

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간 1,754.3만원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32.3퍼센트, 사업소득 17.9퍼센트, 재산소득 17.5퍼센트, 연금 9.2퍼센트, 사회보장 3.2퍼센트, 사적보조금 16.5퍼센트로 65세 이하 가구주에 비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반면 사적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재산소득과 사회보장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소유가구 비율은 77.0퍼센트며 평균주거전용면적은 22.0평으로 주거문제는 안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1인 가구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생활환경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65세 이상 1인가구의 가계소득은 연간 513.5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금, 사회보장, 사적보조금의 이전소득이 57.6퍼센트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8.6퍼센트), 사업소득(7.0퍼센트), 재산소득(16.5퍼센트)로 낮은 수준이다. 주택소유가구비율도 2인 이상 노인가구에 비하여 크게 낮은 58.5퍼센트에 불과하며 주거전용면적도 14.4평으로 낮게 나타난다.

석재은, 김태완(보건사회연구원, 2000)에 의하면 연령수준이 높아질수록 고령인구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0퍼센트 정도가 빈곤선 이하²⁾의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연령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평등도는 고령인구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노인의 생활실태와 경제상황, 복지요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가 있다. 가장 최근자료는 1998년 자료이며 2001년 조사자료가 올해 말에 발간될 예정이다.

2) 1999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32만원수준

이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40만 원이하의 노인가구는 29.2퍼센트로 나타나며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독신가구의 44.4퍼센트가 월20만 원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20-40만 원이하는 31.1퍼센트로 대부분의 노인독신가구가 빈곤선 이하의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독신노인가구의 40.8퍼센트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59.2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독신노인가구의 86퍼센트가 여성으로 독신노인가구의 문제점이 대부분 여성노인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의 문맹률은 29.2퍼센트며 독신노인가구의 문맹률은 더욱 높아 35.7퍼센트에 달한다. 노인가구의 96.9퍼센트가 생존자녀가 있으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49.0퍼센트에 불과하며 농촌지역은 더욱 낮아 40.7퍼센트에 불과하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기능장애를 살펴보면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인구는 56.6퍼센트며 나머지 43.4퍼센트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다.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만 제한받는 노인이 11.5퍼센트며 ADL의 일부만 제한받는 분들이 28.4퍼센트, ADL이 모두 제한 받는 경우도 3.5퍼센트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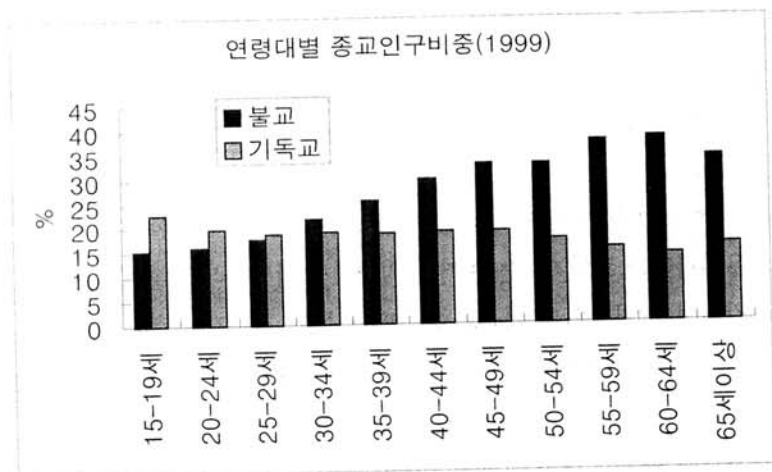
노인가구의 종교상황은 종교 없음이 36.0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불교(33.5퍼센트), 기독교(20.5퍼센트), 천주교(10.2퍼센트), 기타(3.7퍼센트)의 순이다. 독신노인가구의 경우 기독교의 비율이 다소 높아 22.2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1999)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기독교 비율은 16.2퍼센트로 종교 없음(40.0퍼센트), 불교(34.3퍼센트)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이

하의 계층은 종교 없음이 높고 불교의 비율이 낮은 반면 기독교의 비율도 20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40세 이상 50-60세가 되면서 종교 없음의 비율이 낮고 불교의 비율이 높아지며 기독교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계층에서 과거 전통적인 불교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가구는 어떠한 의미에서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높은 사회에서 자라났다. 이들이 성장한 시기는 한국전쟁과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이었으며 이 시기에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대가족 해체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자녀들의 도시이주로 노인부부세대나 독거노인의 수가 증대한 반면 전통적인 가족부양과 공동체적 부양의 연계가 낮아진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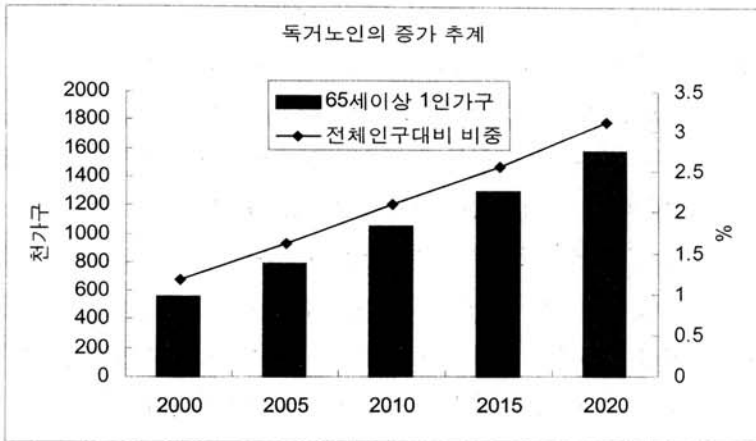
가족과의 연계와 부양이 낮아진 반면 실제 노인인구들의 교육수준과 건강 상태는 열악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절반가량, 실제 취업하고 있는 노인은 25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 노후대책이나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축적된 재산이나 연금혜택, 사회보장이 적어 실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문제는 경제생활의 문제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건강문제, 의료비 지출부담, 역할상실 및 여가,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은 경제적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일 수 있다(최무열, 1999). 무엇보다도 독거노인의 생활수준은 75퍼센트 가량이 절대 빈곤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독거노인의 수가 현재 5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령화의 추세는 독거노인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



킬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554천명인 1인 노인가구(65세 이상)는 2010년에는 백만 명을 넘어서 1,045천명 2020년 1,578천명으로 현재의 2배와 3배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크다. 이들 대부분이 전통적인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의 비율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들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기도가 부족 하였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청년계층에 비하여 복음을 들을 기회나 여건이 많지 않은 노인 분들에게 전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회의 노인선교에 대한 현황은 구체적인 자료를 결여하고 있다. 전반적인 노인선교와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가운데 특정 지



역별, 교단별 설문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노인학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교회의 본격적인 개입은 1972년 종로 태화관에서 시작한 노인학교가 시초이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노인학교는 이후 농촌을 비롯한 전국가지로 확산되었고 1997년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1500개소의 노인학교와 15만 명 정도의 노인들이 노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교 가운데 교회노인학교연합회 산하에는 155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교회의 노인관련 프로그램은 교회의 '노년부'와 '노인학교'가 대부분인데 노년부가 노령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노인학교는 지역 일반노인에 대한 사회봉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무열, 1999).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최대규모의 설문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9년에 실시한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

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김미숙 외(1999)는 7개 교단(예장 통합(30.7퍼센트), 예장 합동(24.2퍼센트), 기장(4.4퍼센트), 감리교(16.8퍼센트), 침례교(7.6퍼센트), 성결교(12.2퍼센트), 구세군(4.1퍼센트))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노인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보면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정 운영(전체 조사대상의 1.0퍼센트), 노인대학 운영(6.6퍼센트), 양로원 운영(2.0퍼센트)로 저조하였으며 반면 프로그램운영은 양로원 방문(32.7퍼센트), 경로잔치(32.2퍼센트), 노력봉사(20.2퍼센트), 불우노인 무료식사 제공(15.4퍼센트), 도시락 반찬 배달(8.0퍼센트)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양로원 방문과 경로잔치 등 1회성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어서 지속적인 선교와 복지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복지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거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노인복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회의 노인선교와 봉사활동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하지만 재정적 측면이나 인력 규모의 측면에서 농촌교회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크게 열악한 상태라는 점이다. 더욱이 재정규모와 인력규모가 적을수록 그리고 교회에 청년계층이 적을수록 교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교회가 농촌지역의 노인선교와 복지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현, 2000; 이흥준, 1999).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홀로 된 노인 분들의 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는데 반해 교회의 인적자원과 재정은 소득수준과 청장년 규모가 많은 도시지역 교회

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에 대한 선교활동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결여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척교회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농촌교회의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현실에서 농촌지역,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분들에 대한 선교가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노인 분들에게 복음과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 교회가 더욱이 도시지역의 교회가 깨어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교회의 연계방안과 협력하여 농촌의 독거노인을 돌아보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경제의 산업화와 서비스화가 지속되면서 농업종사인구가 현재의 10퍼센트(전체 노동인구 대비)정도에서 선진국과 같은 3-5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촌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농촌교회의 평신도 사역 부흥이라든지 농촌교회가 외부의 목회자의 잦은 자리아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스스로 든든히 서 갈수 있는 방안과 같은 농촌목회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

2. 가족해체와 사회의 위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는 사실은 산업화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가족해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령인들이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 출산에 의해 청년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와 가족해체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부양이 몰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과거와 같이 청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공동체적 가치관과 노인에 대한 공경과 부양이 살아 있다면 노령인구 규모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도시로의 이주와 농업의 감소,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일의 성격의 변화, 그에 따른 공동체적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결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율 증대, 기혼여성의 소 자녀관 등은 결과적으로는 저 출산과 가족해체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후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체제의 변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화와 경제의 성장, 그 가운데서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체제인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과거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대규모의 노인독거가구의 출현, 이혼율의 급증 등 가족해체는 가족의 위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승권 외(2001)에서는 가구분화현상이 산업사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 이하로의 출산력 저하, 결혼의 지연 또는 기피, 독신자의 증가, 이혼율 및 별거율의 증가, 중장년층의 조기사망률 증가, 가출 및 유기의 증가, 자살증가 등에 기인되는 가족해체와 비정형적 가구의 증가에 대하여 가

족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2000년 현재 2세대가 전체의 60.8퍼센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3세대가족(부부, 자녀, 양친)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구 역시 정체 내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조홍식 외, 2001). 반면에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1980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1985년에 6.9퍼센트에 불과하던 1인가구는 2000년 현재 15.5퍼센트에 달하며 부부가구도 1985년 3.2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8.8퍼센트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2).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부가구는 2010년 15.4퍼센트, 2020년 18.9퍼센트로 늘어날 전망이며 1인가구는 2010년 18.4퍼센트, 2020년 21.5퍼센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3세대이상 가구는 2000년 8.4퍼센트에서 2020년에는 4.7퍼센트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부부+자녀 가구는 2000년 48.2퍼센트에서 2020년에는 41.5퍼센트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경에는 부부+자녀의 2세대 이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셈이다. 반면 1인가구와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1인 가구(전체 1인가구의 40.5퍼센트가 65세 이상, 2020년 기준)와 부부가구(전체 부부가구의 43.1퍼센트가 65세 이상 가구주)에는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노인가구의 소외현상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통계청, 2002).

해체가족의 가족유형별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편부가족의 경우 이혼/별거가 75.6퍼센트, 편모가족 32.5퍼센트, 1인 단독가구 35.9퍼센트로 전체 평균적으로 40퍼센트 가량이 이혼/별거에 의하여 발생하며 60퍼

센트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망의 원인 가운데는 병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40-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망원인 중에서 해체가족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살이며 우리나라의 8번째 사망원인이며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높은 편이며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2000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6,460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14.6명으로 1990년 9.8명에 비하여 상승 추세에 있다(김승권 외, 2001).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 1990년만 해도 혼인 건수 대비 이혼건수는 11.4퍼센트로 혼인 10쌍 가운데 1쌍 정도 이혼하였다. 그러나 2001년 현재에는 42.2퍼센트로 혼인건수의 절반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건수)은 1970년 0.4퍼센트에서 1980년 0.6퍼센트, 1990년 1.1퍼센트로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증가

가구구성별 가구 : 2000-2020(통계청 추계)

	20002005		가구	구성비	2010		2015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5,789	100.0					18,158	100.0
부부	14,609	100.0	2,185	13.8	16,864	100.0	17,571	100.0	3,429	18.9
부부+자녀	1,802	12.3	7,435	47.1	2,597	15.4	2,987	17.0	7,537	41.5
편부+자녀	7,035	48.2	242	1.5	7,666	45.5	7,688	43.8	284	1.6
편모+자녀	225	1.5	1,005	6.4	266	1.6	279	1.6	1,125	6.2
3세대 이상	923	6.3	1,152	7.3	1,080	6.4	1,112	6.3	85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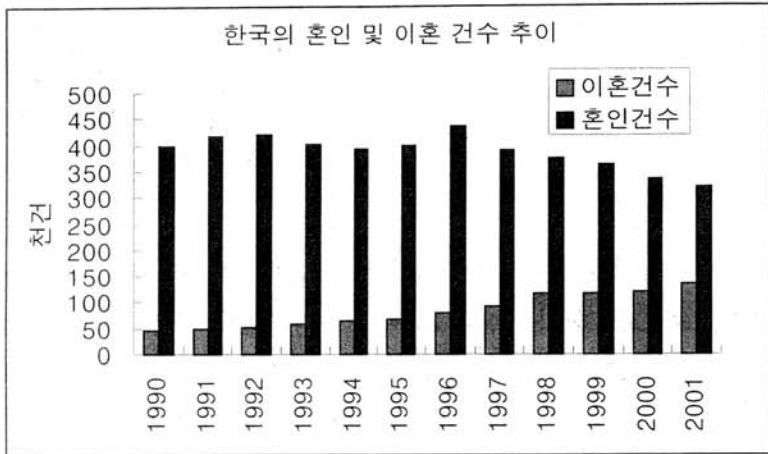
1인 가구	1,223	8.4	2,677	17.0	1,073	6.4	964	5.5	3,897	21.5
비혈연	2,270	15.5	160	1.0	3,109	18.4	3,493	19.9	136	0.7
기타	163	1.1	933	5.9	150	0.9	143	0.8	898	4.9
	969	6.6			922	5.5	905	5.2		

(단위 ; 천 가구, 퍼센트)

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2.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40, 50대 남성의 병사, 운전사고 등의 사고사, 자살, 그리고 급증하는 이혼에 의한 해체가족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가족위기의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체가족의 가족기능수행도 수준은 편부가족이 49.33점, 편모가족이 51.01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 61.8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김승권 외, 2001)되어 해체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문제와 노인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대부분 이러한 가족해체의 위기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사회학자들은 고령화를 주어진 현실로 보고 고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령사회의 문제점의 근간에 있는 산업화가 가져온 가족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결여되어 보인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가족의 위기에 대한 논의 보다는 출산보조금과 육아시설 확충 등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단기적인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출산율 증진을 위한 대책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인 학자들이 고민하고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부분은 가족의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가지는 사



명 가운데 하나는 그 근본에 있는 가족의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서로 사랑 가운데 묶이고 평안하게 되며 청소년들의 마음이 세상 오락에 다 빼앗기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부양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어져 나가던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정들 가운데도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가정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돌아보는 이 없이 삶을 마감해가는 노인 분들을 가족과 지역공동체,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여기서 기독교인 학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의 위기에 대하여 인본주의가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에 걸 맞는 가족형태의 출현과 발전이라는 관점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

에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역할에 걸 맞는 가족을 현대사회에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과연 무엇이 현대사회 가족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그 것의 해악은 무엇인지, 현대사회에 가족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세계관을 방송과 영화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전파되는 메시지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와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가 최악 된 사상에 점차 침몰되어가지 않도록 힘써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회의 고령화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으로 교회의 고령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다.

최근 출판된 "생존을 넘어서는 교회"는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템플 침례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템플 침례교회는 1976년 9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는데 90년을 지속해 온 교회를 축하하는 의미보다는 향후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성대하게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템플교회의 성장과정과 과거 부흥했던 시기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선교사역 등 담당했던 귀한 사역들을 열거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득의 증가와 TV, 자동차의 등장 오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 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을 돌리는 현상, 인구구조의 변화로 흑인인구가 도시에서 늘어나면서 교회 인구가 줄어든 상황,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노인들뿐인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교회가 고령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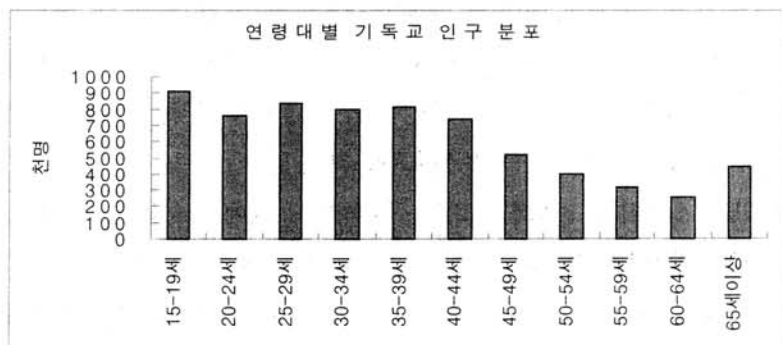
서구의 교회가 고령화되어 간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 온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해외 교회에 갔을 때 소수의 노인층으로 구성된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한다.

나는 여기서 전반적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고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다.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은 마치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이야기 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7퍼센트, 14퍼센트, 20퍼센트를 넘어가는 상황을 이야기 하지만 2001년 현재 전체인구의 42.9퍼센트를 차지하는 15-39세의 청년인구는 2010년에는 37.2퍼센트, 2020년 31.9퍼센트, 2030년 27.9퍼센트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2030년 23.1퍼센트)보다는 높으며 그 인구수는 1천4백만 명(2030년 기준)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령사회가 되더라도 청년인구는 고령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서구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서구선진국의 고령화와 이민으로 인한 백인교회의 고령화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선교초기 189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 일제치하 이전까지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의 도전, 근대화 등으로 산업화 이전시기까지 시련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완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화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급속하게 교인수가 증가하면서 세계교회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단별 자료와 인구센서스통계를 살펴보면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90년대에는 정체현상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연령대별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교인구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가 결여되어 있지만 설문조사자료에 의하면 1990년 이후 1996년 사이 연령별 신도수의 변화에 대하여 어린이, 중고생, 20-30대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교회의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에 40-50대와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신도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교회의 비중이 높았다(노치준, 1998). 이러한 현실은 교회의 정체현상에 대하여 청년인구와 청소년, 어린이 인구의 감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정체현상을 맞고 있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참으



로 많은 제시들이 있지만 우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에스겔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찌라(에스겔 24:21)". 에스겔서에 정결치 아니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소와 그의 자녀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우리의 정결치 않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부하여진 마음으로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는 마음을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서구교회가 그 성소와 자녀들을 세상에 잃어버림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잃어져 갈 것이다.

IV. 결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새로움을 얻게 되기를 기도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면서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 모두 각자 공익을 위하여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관의 붕괴와 가족의 위기, 가족의 해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니 세상은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가족해체에 대하여 세상은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편부모가족을 대안가족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이라고 말하고 이혼과 부정을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는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정당화 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는 이러한 조류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가족 가치관의 붕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사회의 문명은 가족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관계를 그 사회와 신뢰의 관계를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회복케 되기를 기도한다. 여기에 기독교인 학자들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인본주의적 사상과 관점의 의한 가족관이 세상을 물들여 놓은 것에 대하여 부단한 연구와 반론제시, 대안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족관을 제시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늘어가는 독신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전도활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주님께 고이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해체가족,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이들 소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대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대신 갚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노년층의 독신 노인 분들을 위한 도시교회와의 협력과 농촌교회 목회의 자에 대한 선교학적인 모델정립과 고민이 절실하다.

사회의 가족의 위기와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사랑과 전도가 교회의 사명을 향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함과 헌심됨 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시편 110:3)"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헌심됨을 화할 때에 주님의 독수리 날개 같은 힘 있는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리라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많은 서구교회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한국교회는 회개함으로 성실되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참고문헌

- 강문선(2001),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KIEP 지역연구회 시리즈.
- 고양곤(2002), "고령화 사회 노인선교의 방향", '대전제일교회 15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사회의 노인선교 방향』 포럼 발표자료.
- 기독교연합신문사(2002), 『생존을 넘어서는 교회』, *Bringing Your Church Back to Life: Beyond the Survival Mentality*, 1998 Judson Press.
- 김미숙·홍석균·이만직·류장훈(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연구보고서』.
- 김승권·이태진·김무경·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승현(2000), "농촌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 모선희(2002), "교회의 노인복지서비스 참여방안", '대전제일교회 15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사회의 노인선교 방향』 포럼 발표자료.
- 변재관(2001),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승렬(2001), "21세기 교회노인교육의 전망과 대책", 『노인학교 지도자(9기) 세미나 자료』.
- 이우성(2002), "고령화 사회가 물고 올 노동구조 변화",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 이우성(2002), "주력산업이 늘어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 이우성(2002), "고령화 사회의 거시경제 변화와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내부보고 자료.
- 이원덕·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공동포럼 『고령화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 방안』 발표 자료.
- 이혜훈(2001),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KDI.
- 이홍준(1999), "한국교회 노인복지 사업 실태에 관한 연구: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행

- 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장지연(2002),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 노동연구원
- 장하진·박영란(2002), "고령화 시대의 여성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 공청회자료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2001, 『가족복지학』, 학지사.
- 통계청(199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사회참여 부문』.
- 통계청(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 아동, 고령자, 1인가구부문)』.
- 통계청(2002), 『장래가구추계(2000-2020)』.
- 통계청(2002), 『한국의 인구 및 주택』.
- 통계청(2002),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 집.
- 최무열(2001), "21세기 교회사회봉사와 노인교육", 노인학교 지도자(9기) 세미나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98-04.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9), 『세계의 사회복지』.
- KDI 보도자료(2002), "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책",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발표결과.
- Bloom, David E. and Jeffrey G. Williamson (1997),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NBER Working Paper* No. w6268.
- Bloom, David E., David Canning and Jaypee Sevilla (2001), "Economic Growth and the Demographic Transition", *NBER Working Paper* 8685.
- Dang, Thai Than, Pablo Antolin, and Howard Oxley (2001), "Fiscal Projec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 Related Spending",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05.
- Geanakoplis, John, Michael Magill, and Martine Quinzii (2002), "Demography and the Long-Run Predictability of Stock Market",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1338.
- Keese, M. and Lee Jae Hung (2002), "Older but Wiser: Achieving Better Labour Market Prospects for Older Workers in Korea",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정책』 발표자료.
- Lindh, Thomas (1999), "Age Structure and economic policy: The case of saving and growt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8: 261-277pp.

- Lindh, Thomas and Bo Malmberg (1997), "Age structure effects and growth in the OECD, 1950-1990",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431-449pp.
- MacMillan, Henry M and Jerome B. Baesel (1990), "The Macroeconomic Impac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12, No.2, 167-195pp.
- Nyce, Steven A and Sylvester J. Schieber (2001), "Our Assumptions about Ageing and What We are Doing about it", *AEA 2002 Conference Working Draft*.
- Stephenson, John and Grant Scobie (2002), "The economics of Population Ageing", New Zealand Treasury Working Paper 02/05.
- Visco, Ignazio (2001), "Ageing Populations: Economic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Economic Policy for Ageing Societies*, Kiel Week Conference working paper.

ABSTRACT

The Advent of the Korean Ageing Society, Economic and Social Trend Shifts and Missions of Korean Church

Woo Sung Lee

Republic of Korea has entered into the ageing society for the first time in 2001. Because of the fastest industrialization, the speed of ageing in Korea is far speedier than any other advanced countries, even comparing to Japan that is the most aged society in the world. In 2026, Korea will enter into the level of post-aged society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Demographical change tremendously impacts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spects of a society. And, because of the steepness of the change, Korea will face harsh social changes in 20 years. Recently, researchers of ageing society have focused on the subject of social safety net problems including pension crisis, welfares of the elderly, changes of labor market and changes of macro-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However,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issions that Korean churches have to prepare in the advent of the ageing of Korean society. The utmost mission is the

enlargement of evangelizations and aids to the elderly. Already, the elderly household in solitude has substanti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nuclear family trend and the collapse of families. Moreover, most of these solitary aged peoples have neither adequate education nor critical endowments for living, which lead to an inescapable poverty trap. As ageing shall spread out into Korean society, this particular phenomenon will be prevalent to increase the elderly household in solitude and the poverty rates. Korean churches should take up this mission in sincerity. Specially, since the problem is getting worse in rural area, the interlocking relationship of rural and urban churches should be solidly developed to edify each other. Secondly, prayers and love of Korean churches is needed for the recovery of Korea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cause of the ageing crisis lies not on the increase of the elderly, but on the decrease of the youth. The sharp soaring of divorce rate and family dismantlement beyond the spread of the nuclear family will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 and growth of the youth. This, in turn, will bring forth the deepening of youth problems and social violence. The prayers of Korean churches will be indispensable to the recovery of Korean families and the evangelization of Korean youth peoples. Lastly, the subject of the ageing of Korean churches themselves should be taken up for serious discussion. The churches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are widely known for its decline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secularization and ageing. Korean churches would inevitably fall into the ageing of churches when the speed of ageing in Korea would continue. Specially, in the midst that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has stagnated since 1990s and the decrease of the young Christians has been more severe, Korean churches will be more likely to resemble the historical paths of western churches. Facing the ageing society, the most tremendous change in the 21st century, the sincere repentance and returning to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one and only solid foundation to remain to serve as the light and salt with true life to the world.

Keywords: ageing, economic and social structural changes, evangelization and aid to the elderly, the aged household in solitude, poverty, dismantlement of family, youth problem, decline of church